

■광주 온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인터뷰

“선벨트 사업은 수도권 대응하는 성장축”

-새정부의 지역 발전정책을 총괄하는 균형발전위원장을 맡아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이전반대 국민연합공동 대표를 맡은 점 때문에 수도권 정책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일생동안 해온 공부는 지역정책과 지역개발이었듯이 저는 균형발전론자입니다. 다만, 노무현 정부의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것일 뿐, 저의 공부와 실천의 궁극적 목적은 언제나 균형발전이었습니다. 기존 정책이 통일된 국토 공간의 재창조라든가 현실적인 행정능률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것이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학자로서 소신입니다.

“나는 본디 균형발전론자”

‘5+2 광역경제권’ 보완 진행중

-새정부의 대표적인 지역발전 정책인 ‘5+2 광역경제권’과 ‘선벨트(Sun Belt)’사업에 대한 뚜렷한 방침이 제시되지 않아 지자체들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각 부처와 균형위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역경제권 구상은 광역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권역별 특성화·차별전략을 추진, 지방자율성 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룩하는 정책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지자체,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 될 것입니다.

선벨트 계획은 기본적으로 부산에서 목포까지 남해안 지역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축의 하나로 육성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남해안 지역은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 기계·화학 물류 등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태평양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전진기지가 될 가능성과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호남광역경제권의 경우 광주·전남과 생활권이 다른 전북이 묶여 있어 사업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역사·문화적 유사성을 갖고 있는 지역들의 협력이 용이하다는 판단 때문에 5+2 광역경제권을 편성했습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시·도가 긍정적으로 수용, 현재까지 ‘5+2 광역경제권’을 전제로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 광역경제권을 가이드 라인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광역경제권의 성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사업성과 분석 등 과정을 거쳐 법적

최상철 국가균형발전 위원장이 10일 광주를 찾았다. ‘5+2 광역경제권’ 구상과 ‘선벨트(Sun Belt)’ 사업 등 새정부의 국토발전 정책에 대한 추진 일정과 향후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대구(68)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 박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한국 환경교육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제도화를 본격 추진할 생각입니다.

-선벨트 사업에 대구·경북 지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해당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데요.

▲대구·경북은 지리적 특성상 내륙에 있기 때문에 선벨트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판단입니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5+2 광역경제권’ 구상에서 발전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현재 선벨트 사업과 관련, 균형위의 국토부, 전남·경남·부산 등 관련 지자체가 발전 방향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선벨트 개발방향이 결정되면 이미 제정된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사업이 추진 될 것입니다.

-새정부가 혁신도시·기업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적극 추진의지를 밝히지 않아 참여정부 때의 지방정책을 축소,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

려가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 방침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발전적으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일부 공공기관 민영화 등에도 불구하고 10개 혁신 도시 건설은 당초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또 발전적 보완방향도 마련될 것입니다. 혁신도시는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이 그쳐서는 안되고 자생력을 갖춘 지역의 거점도시로 육성돼야 합니다. 지자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부문이기도 합니다. 균형위에서도 기업도시가 지역거점의 하나로 지역

‘영산강 뱃길’ 국가사업 미정

호남고속철, 2015년 안에 완성

의 전체적인 개발방안과 조화를 이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새 정부가 지역 발전의 한 축인 지역 대학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기존 선정평가 위주의 재정지원 방식을 탈피해 일정한 요건 및 성과를 충족하는 대학에 대해 성과에 따른 재정지원이 이뤄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자율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재정 지원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균형위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통해 지역 대학 육성·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전남도는 자연 생태환경 재생과 지역발전을 위해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호남고속철 조기완공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뱃길복원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느냐 여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호남고속철도를 계획 기간인 2015년까지 적기 완공해 전국을 ‘X’자형 고속철도망을 구축해 광역경제권간 단일 생활권을 만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오는 8월까지 호남고속철도 사업 기본설계와 교통영향 평가를 완료한 뒤 2009년 9월부터 착공, 고속철이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강박원 의원> <나중천 의원> <이정남 의원> <이철원 의원> <유재신 의원>

“예결위 상설화, 집행부 견제 강화” 한목소리

광주시의회, 오늘 정견발표 후 의장 선출

사무처 인사권 독립·유급 보좌관제 추진

제5대 광주시의회 후반기가 이틀 의장 선거를 하루 앞둔 10일 시 의장 후보들은 “후반기에는 보다 강력한 의회를 만들겠다”며 마지막 득표활동을 벌였다.

의장 후보들은 지지 의원들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표를 단속하는가 하면, 11일 정견 발표에서 제시할 의회 운영 방안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의장 후보 대부분이 특히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유급 보좌관제 도입▲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어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이 같은 공약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의회 본연의 정책·예산 심의 기능이 강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날 의장 선거에 앞선 정견 발표회에서 강 의장은 의회가 시민 대표 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의원 스스로 실력을 갖추고, 의회 차원의 개혁도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강 의장은 이에 따라 “의회가 정책 제안자, 정책 결정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구 모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사무처 인사권 독립, 유급보좌관제 시행, 의정비 현실화 등을 추진해 의회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나중천 의원은 의원 연수제도 도입,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적정 교부금 집행 추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의회 인사권 독립, 인턴 보좌관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정남 의원은 “의원들이 제 목리를 낼 수 있도록 의회 의장이 적극 나서서 한편 시장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며 세부 추진 계획과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철원 의원은 “당장 자리 하나 차지하기 위해 기존 폐단을 답습한다면 정치생명을 끝낼 수도 있다는 것을 고민하고 투표에 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 의원은 이어 “의장 업무추진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의원들의 자기 개발을 위한 정규 교육프로그램 신설, 지역 현안사업의 균형적 교부금 확보 등을 통해 강한 의회로 변모시키겠다”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유재신 의원은 “이 눈치 저 눈치보면서 전전긍긍하는 의회의 모습이 아닌, 강력한 의회, 건강한 집행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조례를 개정해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로 옮기고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성화, 조례 및 위원회 정비, 입법정책실 활성화, 윤리위원회 자문위원단 구성 등에 힘을 쏟겠다”는 정책을 발표해 표를 연결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11일 오전 10시 제 170회 1차 정례회를 열고 의장 후보자들에 대한 정견 발표를 거쳐 전체 의원(18명) 투표를 통해 최종 선출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을 얻고 상당수 지지 의원을 확보한 강 의장이 우세하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지만 지난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은데다, 일부 후보들이 막판 치열한 세 확보에 나서고 합종연횡 움직임까지 보여 1, 2위 후보를 놓고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주당 김영진 의원

‘농어업 회생’ 공동대표

민주당 김영진(광주 서구) 의원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 의원 모임’ 창립 총회에서 민주당 강기갑(사천)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광주 남구의회 의장 조영표씨

장흥군의회 의장 이승일씨

광주시 남구의회 후반기 의장에 조영표(47) 의원이 선출됐다. 남구의회는 10일 열린 제149회 정례회에서 후반기 의장 선거를 통해 재직의원 12명 중 7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조 의원을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박춘수(48) 의원이 뽑혔다. 장흥군의회도 이날 임시회를 열어 이승일(64)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뽑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조영표 의장> <이승일 의장>

이 의원은 이날 김화자 의원과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7명 중 5명의 지지로 의장에 뽑혔다. 부의장에는 황월연(54) 의원이 선출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장흥=김용기기자 kykim@

Advertisement for 'Daejeom' (대리점) featuring various food products and a large image of a food truck. Text includes '대리점 大 모집' and '농산물 판매'.

Advertisement for 'Summer English' (여름방학 영어) program. Text includes '해외연수! 이젠 필요 없다!!' and '여름방학 영어 문입·집중 특별 프로그램'.